

◆ 교회목표 ◆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오태희 편집국장: 조선근

..... 1953 · 교회설립 40주년 기념 · 1993

전 교인 성경암송 및 그림그리기대회

다음 주일, 전 교회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당 전체에서

교회설립 40주년 기념으로 실시하는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및 그림그리기 대회가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를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준비위원회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회를 기다리고 있다. 6월6일(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당 전역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성경암송대회는 이미 지난 5월23일과 30일에 각 교회학교 단위 부서별로 예선을 거쳐 본선 진출자를 가려놓고 있어 6월6일에는 본선 진출자들의 대회가 펼쳐진다. 대회는 교회학교가 끝나는 시간대에 맞추어 각 교회학교 군별로 실시하게 된다.

그림그리기 대회는 IV예배가 끝난 후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교회당 뜰과 주위에서 실시하게 된다.

참가대상은 암송대회는 전교인, 그림그리기 대회는 유치부에서 고등부 학생까지로 새가족의 경우는 해당 연령 교회학교에 참

가하면 된다. 그림그리기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은 크레파스나 물감을 준비해야 하고 종이는 주회 측에서 준비하게 된다.

시상은 성경암송대회는 최고상 1명, 대상 5명(영아·유치부 1명, 초등1-6부 1명, 중등·고등부 1명, 대학·청년부 1명, 장

년·소망부 1명), 그림그리기 대회는 최우수 1명, 대상 4명(영아·유치부 1명, 초등 1-3부 1명, 초등4-6부 1명, 중고등부 1명)으로 6월13일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을 할 예정이다.

충현기도원 설립 제15주년 기념부흥회

능력받고 충성하자

5월 31일 밤 — 6월 3일 밤까지

충현기도원은 기도원 설립 제15주년을 맞으며 기념 부흥회를 오는 5월 31일 밤부터 6월 3일 밤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기간중

매일 오전 4시 30분에 새벽기도회, 오전 11시에 낮 성경공부, 오후 8시에 밤 부흥회로 모이게 되는데 숙식을 하며 참여할 사람들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1. 김창인 원로목사님

· 5월 31일, 6월 2일 충현기도원설립 15주년 기념부흥회 설교
· 6월 2일 침례 교역자 훈련 설교(양수리 수양관)

2. 신성종 당회장 목사님

· 6월 1일 충현기도원설립 15주년 기념부흥회 설교

은 미리미리 신청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부흥회는 충현기도원 설립 제15주년을 맞는 특별부흥회로 모여 준비 및 진행 등에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강사는 김창인 원로목사와 당회장 신성종 목사, 신현균 목사(성민교회 당회장, 민족복음화 총재), 충현기도원 지도인 유창무 목사이다.

부흥회 기간중 교회에서 오전 9시-10시와 오후 6시 30분-7시에 기도원행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숙박시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에 기간 중 숙식을 하면서 부흥회에 참석한다면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제3기 충현 선교연구원생 모집

선교에 관해 배울 좋은 기회, 1년 동안 매 주일에 모여

충현선교연구원은 그동안 계속 되어온 제2기 선교연구원을 오는 6월 13일에 마치면서 6월20일 개강하는 제3기 연구원생을 모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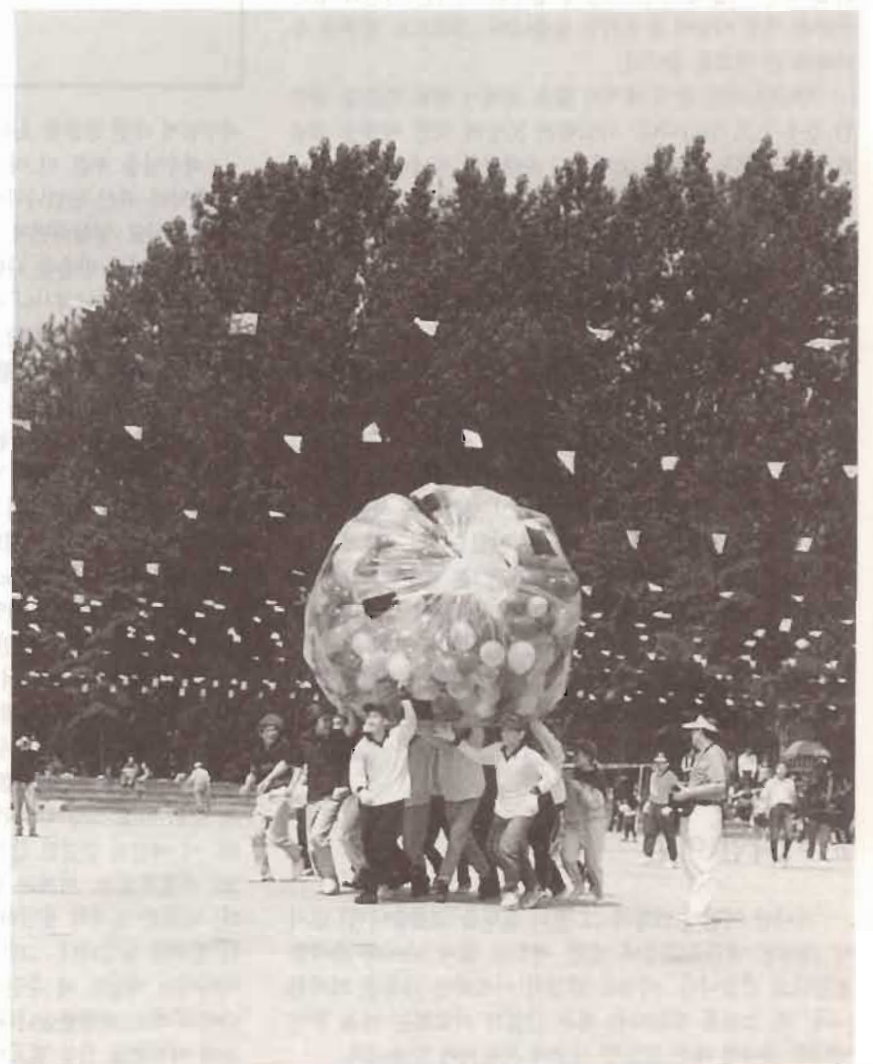
선교위원회는 지금까지의 교포선교에서 원주민선교로 전환하기 위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선교를 파악하여 타문화권에서 선교에 앞장 설 사명감이 투철한 일꾼을 양성해야 됨을 인식하고 이에 현지 적응에 합당한 훈련도 병행하여 능력있는 미래의 선교사와 후원자를 양성하여서 파송 혹은 후원하고자 1991년 6월에 선교연구원을 설립하고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선교에 관한 바른 정보와 선교에 대한 주변 공감대를 형성하여왔다.

이 충현선교연구원의 강의는 현지 선교사들과 각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알찬 강좌로 소문이 나 있다.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기에 여건이 허락하는 사람들은 참여한다면 올바른 선교관과 선교에 대한 마음을 깊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1년동안 매 주일 오후3시부터 5시까지 모이는 연구원은 1)선교 소명자 양성(전임 및 평신도 선교사) 2)선교 후원자 양성 3)선교지를 실제로 파악하여 전략수립 4)현 선교사를 위한 기도와 재정후원 5)충현 세계선교원의 모체 역할담당 6)한국교회에 선교 비전 확산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모이고 있다.

제3기 모집요강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대상 : 전교인 (교구 담임목사 추천)
 2. 교육기간 : 1년 52주
 3. 수강료 : 10,000원
 4. 모집인원 : 100명,
 5. 모집기간(6월6일(주) - 6월13일(주), 면담 6월20일(주))
 6. 등록장소 : 교육국(교육관 103호)
 7. 강사 및 선교훈련 일정표
93. 6. 20 - 7. 25(6주)
손영준/한장국(OMF) - 선교사 훈련 문제
93. 8 - 9. 5(6주)
임흥빈 / 이동주
93. 9. 2 - 9. 26(3주)
강승삼 - 총회선교 전략
93. 10. 3 - 11. 7(6주)
전호진 - 선교사를 위한 관리와 조직문제
93. 11. 14 - 12. 19(6주)
전재욱 - 이슬람 선교전략
94. 12. 26. 1. 2 휴일
94. 1. 9 - 1. 30(4주)
윤수길 선교사 - 일본 선교보고와 전략
94. 2. 6 - 3. 13(6주)
유전명 - 중국선교전략
94. 3. 20 - 4. 24(6주)
노봉린 - 선교사 자녀교육 문제
94. 5. 1 - 5. 22(4주)
최을선선교사(강승삼선교사 부인) - Nigeria 및 케냐 선교보고
94. 5. 29 - 6. 3 (6주)
Marlin Nelson - 선교와 교회성장



다함께 올림픽 한마당

2개월여간 온 교역자 각 연합교회가 준비해온 제4회 중원 올림픽이 드디어 막이 올라 신나는 올림픽 한마당을 펼쳤다. 응원파 각종 경기 등으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즐겁고 감동적인 순간들을 보내고 모든 교우들은 이제 좀 교제할 수 있는 좋은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시고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렸다.

본

문은 가나안 여인을 한 예로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찬양해야 할 선민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오히려 개처럼 취급당하고 예수님을 몰라야 할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던 역설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전혀 의외의 장소에서 믿음을 만나심

본문에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마 15:21, 22).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은 혈통을 중심으로 표현한 것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말은 지역을 중심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수로'라는 말은 '수리아'의 준말이며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 정확하게는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수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 여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두로와 시돈 지역은 유다 지역 바로 밖에 위치한 이방지역의 첫 번째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경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지역은 페니키아의 아주 중요한 항구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 있다고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상숭배 지역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참된 믿음이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도저히 없을 것 같은 두로와 시돈에 오히려 신앙이 좋은 가나안 여인 같은 사람도 있고, 유다지역은 선민들이 살고있으니 정말 믿음이 좋을 것이다 하고 기대되는 곳에는 오히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지도 모릅니다. 북한 같은 곳은 신자들이 있다고 전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곳에 정말 참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서울에 주님 마음에 합당한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가나안 여인 같이 예기치 않은 곳에서 참된 믿음을 발견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백부장 고넬로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4절 이하에 보면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했을 때가 그곳으로 가서 씻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도저히 신앙인이 있을까 의심스러워 하는 그런 장소에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정말 거기에는 믿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곳에는 참된 믿음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게하시입니다. 게하시의 사환으로 선지자를 섬기면서 그 밑에 일하는 사람, 정말 신앙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또 가롯 유다의 경우가 이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식인이요 열심이 있는 사람이며 처음부터 그가 도적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결국 정말 바른 신앙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곳에는 신앙이 없고 거기에 무슨 신앙이 있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것이 나겠느냐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에는 오히려 큰 편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그 딸의 절경을 고쳤습니까? 먼저 이 가나안 여인은 22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아와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또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그냥 일반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눈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에 메시아로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감겨져 있는 맹인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른 것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메시아 칭호인 다윗을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면 이 여인이

충현강단



가나안 여인처럼 (마 15:21-28)



신 성 중

<목사·당회장>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른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나타내십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못 들어서 침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한 번 시험해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딸로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고백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침묵하신 후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뜻밖에도 거절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나안 여인을 거절했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 즉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이야 할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개들에게,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방 사람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거절하셨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수도입니다. 견딜 수 없는 참패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27절에 '주여 울소이다'라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기도할 때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 응답이 안됩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주실 때까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내게 축복해주시기까지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절사적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개처럼 취급하는 예수님의 치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에 '울소이다' 하며 그대로 감내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책망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은혜 못받습니다. '울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가 많아요, 정말 우리가 죄가 많아요,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긍정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주시킵니다. 그러면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부스러기를 요구하는 이 여인의 겸손함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2, 25, 27절) 예수님에게 소리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25절에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회주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27절에 "주여 울소이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예수

님께 요청한 것, 이것도 바로 기도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이 여인은 세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3. 시련이 때때로 우리 영혼에 유익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침묵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래 내가 주야' 하고 바로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고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바람이 불지 않는 순경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순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경에 차려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도 감사하고 기도하세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라든지 제철을 보면 '그래 그때 참 어려웠지.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내게 도움이 되었어.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그렇지 않았으면 날 큰일 났을꺼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월바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을 속아서 다 날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간절히 배달리며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재산은 다 잃었지만 내 영혼은 건졌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교훈은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나지만 우리 영혼에 있어서는 이 시련 만큼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련 기사는 '이 시련(고난)이 유익이라.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배웠다'고 했습니다(시119:71).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자녀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때에 달리는 인내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자량을 하고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자량하고 싶어한다. 어려서는 키 크다고 자량하고,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선생님에게서 칭찬받았다고 자량하고, 반장되었다고 자량하고 노래를 잘한다고 자량한다. 좀 더 자라게 되면 장학을 받았다고 자량하고 자동차 있다고 자량하고 아파트를 샀다고 자량한다. 중년이 되면 지식 자량하고 남편 자위 자량하고 병을 앓았다고 자량한다. 이처럼 변하지 않는 것은 자량하는 버릇이다.

그러나 자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무작인 것을 자량하는 사람은 외적인데 자중하는 보통 사람이고, 나라와 민족을 자량하는 사람은 애국자이다. 그러나 잘 자량은 예수 자량이고, 하나님 자량이다. 외 자량은 아무리 해도 유치하지 않아서 좋다.

사람은 그 자량의 종류에 따라 그의 인격이 결정된다. 과연 당신의 인격은 몇 점인가?

글 / 신 성 중 목사

❖ 책소개 ❖

■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



홍 창 민

〈목사, 제21교구, 새가족부지도〉

당신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기도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 기도는 어떤 의무감에 서인가? 아니면 당신의 삶의 한 부분으로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는 필요 불가결한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지만, 한편으로 현대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이 기도생활 만큼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누구나 많은 일들로 인하여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로인하

여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으며, 더욱더 물질적인 풍성함은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삶으로서의 기도가 점점 잊혀져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많은 도전과 주고 있는 책이 바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싶다.

이 책은 비록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에 의하여 씌여졌지만, 이미 영국과 미국에서 수십판에 걸쳐 무려 십만부 이상 출판된 기독교 고전 중의 하나이다. 저자는 이 책을 간결한 문체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적 진리를 간단 명료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화를 곁들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으로서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 책은 전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으로서의 기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약속들, 기도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시며, 기도를 막는 장애물들은 무엇인가?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저자는 이 책에서 영적 생활의 참다운 성장 - 이를테면 시험에서의 승리, 역경과 위험 속에서의 자신감과 평안함, 엄청난 실망과 손실 앞에서의 영혼의 평안함,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앙생활 - 은 바로 은밀한 기도의 실천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 그는 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며, 용기를 잃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은밀한 기도에서 실패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주님은 이 책에서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저자미상 / 이진희 옮김 /
생명의 말씀사 / 188면 /
값3,000원

서는 무릎으로 살아야 함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책들이 지식적으로 머리에 호소하고 있는 반면에, 이 책은 우리의 가슴에 호소하는 그 무엇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이 책을 읽어 내려가다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가정의 달, 5월이 오면 문득 떠오르는 두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88년 서울올림픽 육상경기장에서 직접 목격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루이스와 벤 존슨이 벌이는 세기의 대결을 보기 위해 모였는데 한 어머니가 국민학교 3학년쯤 되는 딸 아이와 함께 이를 관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딸 아이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금메달 따면 뭐가 좋아요?" 이 질문을 받은 어머니는 아이의 묻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응, 금메달 따면 돈방석에 앉게되고 평생 팔자고치는 거야!"

또 하나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이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한분이 어느날 학생 교외생활 지도차 덕수궁엘 갔었답니다. 이곳 저곳 구경삼아 걷는 중에 국민학교 1학년 쯤 되보이는 아이들 몇명이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펑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어 아이들을 불렀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놀던 것을 멈추더니 오지는 않고 슬금 슬금 쳐다만보며 자기들끼리 뭐라고 속닥거리더라 합니다. 잠시후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아저씨, 선생님이에요?" 이 교사가 의아해 하면서 되물었습니다.

"그래 맞다. 그건 왜 묻니?" 그랬더니 이 귀여운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잔디밭에 들어가자 말아야 되는데 들어가 놀았다고 부르신 것이요? 저희들 5,000원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드릴테니 눈감아 주실래요?"

● 칼 럼 ●

5월의 다짐



차 신 득

〈장로, 제2교구장〉

배금주의, 물질만능주의에 오염된 일면을 보여주는 한 예들입니다. 생활교육의 현장에서 내던지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되새겨보게 하지만 선생님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꼬마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경악과 함께 '이 아이들이 크면 어떤 사람이 될까?' 섬뜩해지는 위기감마저 듭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우리 사회 어느 한 구석도 온전한 곳이 없어 보입니다. 부정과 불의에 대하여 무감각할 정도로 오염돼 버린 어른들의 모습을 아이들에게까지 보여주는 것만 같아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의 두려운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 뿐이고 아이들이 물어오면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할 지 유구무언입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은 문제가 있는 부모는 아니었는지, 자녀들의 세계와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이해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성해보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게 됩니다. 성경말씀은 많이 알면서도 삶 속에서의 변화는 별로 없고 가족에게조차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위치로 내려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게 됩니다.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실행일치의 삶이야말로 가장 큰 힘을 갖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더욱 철저해지며 가정과 교회에서 자라나는 2세들에게 생활속에서 더욱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 보기를 헛살 찬란한 5월에 다시한번 다짐해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일은?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주일을 보낸다. 오랫동안 주일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주일에 교회 오는 일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주일에 교회 출석하는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즉 습관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동서남북

예배도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고 봉사로 타성에 젖어들게되고, 교제도 곁들게 되는 모습을 보여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새신자의 경우는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까지 오는 일이 큰 투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에 출석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석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지만 교회에 나오면 그들은 감격과 기쁨이 있기에 늘 감사하는 모습을 본다.

결국 "행동은 습관화 하는 것이 좋고 정신(내적 자세)은 늘 새로워야" 하는 것이다.

토막소식

◆ 영아부에서는 교회설립기념행사로 '사도 신경 암송대회'를 개최한다. 예선은 오늘(5/30)이며 본선은 6월6일(주일)에 하게된다. 또 영아부에서는 현재 예배장소가 협소하여 6월부터 3부(1부:9시, 2부:10시, 3부:11시)로 드릴 예정이다.

◆ 유치부에서는 오늘 1부와 2부 예배후 '십계명 암송대회'예선과 결선을 치르며 6월에 있을 초청전도 대회를 위해 기도중이다.

◆ 초등1부에서는 '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6월13일(주일)에 9:50-10:30분까지 실시된다. 장소는 교육관 212호실에서 있다. 암송대회와 함께 기도로 준비하자.

◆ 초등4부는 지난주일(5/23) '창세기 1장 암송대회' 예선을 실시하였다. 참가인원은 38명이었으며 완전히 암송한 어린이는 12명이었다. 오늘(5/30)은 총동원 새친구 초청잔치를 개최한다.

◆ 초등5부는 오늘 '연구수업' (소1 정임순)이 있고 예배 후에는 '성경암송대회' 예선이 있다.

◆ 중등3부는 30일 '총동원 전도주일'의 전야행사로 29일(토) '예수사랑 봄잔치'에서 찬양과 율동, 체육대회, 레크레이션 등으로 학생·교사간의 결속을 다졌으며 총동원 전도주일 집회를 위하여 하루에 5분이상씩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있다.

◆ 고등부는 6월1일부터 6월30일(1개월)까지 '나눔과 섬김'이라는 주제로 제2차 미래지도자 운동을 연다. 6월6일은 '불우기관 및 선교단체와 자매결연' 13일은 '나눔의 장터', 20일은 '교회와 지역사회 봉사', 27일은 '북한청소년을 위한 특강 및 기도회'로 모인다.

◆ 대학부에서는 앞으로 있을 여름수련회('이렇게 살라' 십계명의 현대적 의미)와 4차에 걸친 제자훈련과 수련회, 예수사랑 가을잔치(9월19일)를 위해 기도 중이다.

◆ 청년·대학 연합기도회가 6월6일 주일 저녁예배 후에 모인다. 1선교관 지하 2층 식당

에서 모이는데 이번의 주관부서는 청년1부이다.

◆ 청년3부는 '작은선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선교의 현실적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관심있는 분들을 초청한다. 이 선교특강은 오늘 1:30 - 3:00까지 예서 열리며 기도지원의 필요와 타문화권 선교이해, 국내거주 외국인 선교전략 모색 등의 주제로 모인다.

◆ 장년3부에서는 5월중 300명 목표를 달성하기 전심으로 기도에 힘써 주기를 바라고 있다.

◆ 새가족부에서는 '성경빨리 찾기대회'가 있을 예정이다.

범위는 신·구약 전체이며 새가족 환영회 시간에 간증할 간증자를 세 사람 모집하고 있다.

◆ 사랑부에서는 어린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죽어 아끼며 운전으로 봉사할 교사를 원하

고 있다. 사랑부 차량봉사 교사는 아침시간에 사랑부 학생들을 태우고 와서 끝난 후 데려다 주는 일까지 해야하기에 교회 내의 다른 봉사와 심지어는 예배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사랑부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차량운전으로 봉사할 수 있는 교사를 구하고 있다. 여건이 맞는 사람은 사랑부 교사실(교육관 109호)이나 사랑부 교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교회에서 여직원을 모집합니다.

본 교회 사무국에서는 총무과에서 근무 할 참신한 여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자 격 : 총현교회 세례교인으로써 PC를 활용할 줄 아는 자
2. 성 별 : 여 ○ 명
3. 연 령 : 20 - 21세
4. 제출서류 : 이력서 1통(사진첨부), 교구목사 추천서, 타교인일 경우 (당회장 추천서)
5. 제 출 처 : 사무국 총무과(☎ 552-8200, 교육관 402)
6. 제출기한 : 6월 5일 한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니다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사역 위에 함께 하여 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5월31일(월), 6월2일(수) 총현기 도원설립15주년 기념부흥회 설교,
· 6월2일(수) 침례 교역자 훈련 설교(양수리 수 양관)
· 신성종 목사님 : 6월1일(화) 총현기도원 설립15주년 기념부흥회 설교
2.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깨끗한 나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3. 총현기도원설립 15주년기념 부흥대성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소서.
4. 미주 선교찬양대원들을 강건케 하시며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1953 · 교회설립 40주년 · 1993

교회설립 40주년 기념사업 게시판

1. 미주선교 찬양대

- 매주 3회 연습 실시(주일 찬양예배 후와 수요 II부 예배후, 토요일 저녁 7:00, 나사렛홀)
- 제3차 수련회를 6월10, 11일 총현기 도원에서 가질 예정이다.
- 일정 : 6월 26일(토) 3:00 출발, 7월 10일(토) 저녁 9:35분 도착

2. 성경암송대회 및 그림그리기 대회

- 4월 4일, 각부 교회학교 부장단 및 처장단 모임 갖고 기본계획을 전달하고 기본조직 확정
- 각 교회학교 암송대회를 대비 해서 자체내의 암송대회 및 퀴즈대회 등 실시하고 있다
- 모든 준비 완료하고 당일 진행 계획

3. 제4회 총현올림픽

- 4월 4일 까지 접수된 표어를 심사하여 확정 "뛰어라, 손잡고, 새롭게"(손신애·고등부 회원)
- 4월 4일 교역자, 장로 대상의 제1차 설명회를 가짐
- 심판부(부장 박승준 장로)에서는 심판규정과 경기규칙을 결정하고 심판명

단을 확정하여 발표함

- 4월 11일 피켓 걸 심사 선발 / 유 정명 자매 (제 1교구, 청년 2부)
- 4월 11일 전교인 대상으로 제2차 설명회 실시
- 매주일 오후 4시 선교관 305호에서 올림픽조직위원회로 모여 준비상황을 점검
- 각 연합교구들은 모임을 갖고 올림픽 출전계획과 가장행렬 계획들을 수립

4. 선교대회

- 선교대회 일정을 9월 2,3일로 잡고 기본일정표 작성, 준비작업에 들어감
- 일시 : 1993. 9. 1(수) ~ 9. 3(금)
- 장소 : Norton 목사(리폼드신학교교수) 강승삼 목사(총회 선교국장) 총현교회 과송선교사
- 내용 : 선교사 보고, 선교사전, 선교도서전시회, 2000년대 선교를 향한 세미나

5. 기독교교육 학술 심포지움

- 모든 기본계획과 심의를 마무리 짓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감.
- 5월14일, 심포지움에 참여하여 발표할 강사들이 모여 협의

선교지 탐방기 - 홍콩편(5)

시각착오

제주도에 가면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곳이 있다. 눈으로 보기에는 올라가는 곳 같은데 차는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다. 이것은 시각착오에서 나오는 현상이라 한다. 홍콩에도 이와 비슷한 곳이 있었다. 홍콩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에 올라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언덕을 올라갈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다. 그 경사가 얼마나 심한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런데 그곳을 올라가면서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하나 나타났다. 40층이 넘는 높은 빌딩이 하나같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마치 피사의 사탑을 생각나게 했다. 아니 저렇게 높은 빌딩이 어찌 비스듬히 누워 있는 것일까? 알고 봤더니 그 점이 기운 것이 아니라 내 자세가 기울어져 있기에 그 점이 기울어져 있는 것 처럼 보인 것일 뿐이다.

사람은 가끔 시각착오를 일으킬 때가 있다. 이것을 느끼는 순간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본다고 해도 이미 버릇처럼 있는 내 자신으로 보기에 오히려 바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게 되었다. 내가 스스로 의인인재 하고 내가 제일 충성된 자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나는 또 한 번의 기도를 드렸다. "주여, 내 자신이 잘난줄 알고 내 교집만 피웠던 지난 날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눈 속의 들보를 먼저 해결하되 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남의 눈에 티끌을 빼라고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선교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모든 시각착오들을 이제 바로 고쳐서 하나님이 분부하신 세계선교를 향한 바른 눈을 갖게 하옵소서"

(선교위원회 제공)

